

사회복지 주간 동향(23.11.27.~12.1.)

1. 용인시 정책 동향

1

용인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안내

2023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보고회 개최

< 올해 성과 공유하고 우수 협의체 사례 발표... 우수 협의체·유공자 표창 등 >
< 이상일 시장, “여러분 가슴 속 ‘사랑의 씨앗’이 어려운 이웃에 ‘희망의 꽃’으로 필 것” >



- * 용인특례시는 지난 24일 시청 에이스홀에서 38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한해 성과를 공유하는 활동보고회를 열음
 - 이날 행사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을 비롯해 한숙희 용인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 38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등 300여명이 참석함
 - 이날 지역 사회 발전과 복지사각 지대 해소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온 유림동(유림동 행복 나눔 프로젝트), 신갈동(홀로 가구 맞춤 행복 지원), 풍덕천2동(청춘씨네), 서농동(사랑의 고구마 나눔 농사 일기)의 지역사회 협의체 특화 사업이 우수사례로 선정돼 단체 부문 표창을 받음
 - 이와 함께 오길환(포곡읍), 전연수(모현읍), 이연선(원삼면), 박승만(양지면), 노영희(중앙동), 홍현숙(유림동), 고광현(동부동), 우재혁(신갈동), 권영지(서농동), 홍승모(구성동), 문석수(마북동), 허정숙(동백1동), 홍종락(동백2동), 윤미숙(동백3동), 장일문(풍덕천1동), 오분례(풍덕천2동), 박순구(죽전2동), 나현희(죽전3동), 변순옥(상현2동) 등 19명이 협의체 활성화를 위해 힘써온 공로를 인정받아 유공자 표창을 받음

- 이날 38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한 해 동안 활동 해온 영상을 상영하고, 유림동, 신갈동, 포곡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우수사례 발표를 함
 - 올 한해 용인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전국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 강화 컨퍼런스’에서 최우수상(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았고, 포곡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경기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 컨퍼런스’에서 우수상(경기도지사상)을 수상함
 - 한숙희 용인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은 “올 한해 복지사각지대 해소 실천 캠페인부터 다양한 특화 사업들까지 읍·면·동 협의체의 활동과 원활한 운영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 주신 위원들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이 시민을 비롯한 우리 모두의 행복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21세기형 공동체의 좋은 모델을 만드는 활동을 하도록 내년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함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우리 용인특례시가 좀 더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도시, 따뜻한 도시가 되어 가는 것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한 협의체 위원들의 활약 덕분”이라며 “여러분 가슴속에 있는 사랑의 씨앗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의 꽃으로 피어나리라 생각한다”고 말함
 - 이 시장은 “여러분들의 지혜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지역 내 대학들과 협업체 복지 아카데미도 열고 중장년층 1인 가구 지원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며 “올 한해 마무리 잘 시고 내년에도 더욱 활발하게 활동해 달라”고 당부함
- ※ 용인시 보도자료 참조(복지여성국 복지정책과)

2 용인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안내

용인특례시, 곳곳서 어려운 이웃에 김장 김치 전달

- * 용인특례시 지역 곳곳에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 직접 만든 김치를 전달하는 온정의 손길이 연일 이어짐
 - 나눔을 실천한 기업과 주민들은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입을 모아 이야기함
 - 지난 20일 (주)엠케이전자는 처인구 포곡읍에 직접 담근 김장김치 100박스 기탁
 - (주)엠케이전자는 지난 3년 동안 김치 나눔 활동을 통해 이웃사랑을 실천함
 - (주)엠케이전자 관계자는 “임직원이 함께 정성을 담아 준비한 김치가 지역의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마음과 함께 잘 전달되기를 바란다”고 말함
 - 지난 21일 수지구 죽전1동 주민자치위원회는 ‘따뜻한 겨울나기 김치 나눔’ 행사를 진행
 - 겨울철을 앞두고 주민자치위원회는 지역의 소외계층과 저소득 홀몸 어르신에게 김치 50박스를 전달
 - 최재만 죽전1동 주민자치위원회장은 “정성껏 준비한 김치가 행복한 겨울을 보내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주민들과 함께 운영하는 자치위원회는 이웃을 돌아보며 관심과 나눔을 실천하겠다”고 말함
 - 같은날 처인구 중앙동 새마을부녀회는 용인성당에서 김장 나눔행사를 진행
 - 행사는 중앙동 단체협의회 후원금으로 마련됐으며, 새마을부녀회원 30여명이 참여해 1500kg의 김치를 만들어 150가구에 전달
 - 소진만 중앙동 새마을부녀회장은 “추운 날씨에도 부녀회원들이 모여 김치를 만들어 전달해 기쁘다”며 “후원금을 마련해준 중앙동의 단체들과 회원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함
 - 22일에는 처인구 동부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역의 저소득 가구 80곳을 위한 ‘동부동 愛 김장독’ 사업을 진행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인 이번 행사에서 회원들은 김치를 직접 담그고, 각 가정에 전달
 - 동부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계자는 “직접 김장 김치를 담궈 전달하는 행사를 통해 취약계층이 나눔 문화를 느끼고 건강한 겨울을 보내기를 바란다”고 말함
 - 같은 날 수지구 상현3동 단체협의회는 독바위식당에서 김치를 담그고, 지역 내 14곳의 경로당에 전달하는 김치 나눔 행사를 가짐
 - 행사를 주관한 한광운 상현3동 체육회장은 “지역의 어르신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전달해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서 소중한 이웃들과 마음을 나누고 따뜻함을 전달하는 상현3동 단체협의회가 될 것”이라고 말함

- 이어 23일에는 기흥구 마북동 새마을부녀회가 주최한 김치 나눔 행사가 진행
 - 마북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행사에는 마북동 통장협의회 등 8개 단체와 (주)KCC 중앙연구소 임직원, 구성 라이온스클럽 회원 등 50여명이 참여, 담근 김치는 지역 내 어려운 이웃 80가구에 전달
 - 임인숙 마북동 새마을부녀회장은 “어려운 이웃을 돕는 봉사에 매년 참여하고 있다”며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이 정성을 담아 준비한 김치가 어려운 이웃들이 겨울을 보내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함
 - 24일 수지구 신봉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따뜻한 겨울나기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를 열음
 - 이 행사는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역특화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위원들이 직접 담근 김장김치 400kg은 지역 내 40곳의 이웃에게 전달
 - 김경순 신봉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함
- ※ 용인시 보도자료 참조(포곡읍/죽전1동/중앙동/동부동/마북동/신봉동 맞춤형복지팀, 상현3동 행정민원팀)

3 용인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안내

용인특례시, 겨울철 한파 녹이는 온정의 손길 이어져

-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 곳곳에서 어려운 이웃을 위한 온정의 손길이 이어짐
 - 각 지역 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특화사업을 통해 겨울을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물품을 지원했고, 민간단체와 기업, 어린이집에서도 나눔을 실천해 온기를 더함
 - 지난 20일 기흥구 동백1동 새마을부녀회는 지역 내 취약가구 30곳을 방문해 생필품 꾸러미를 전달
 - 새마을부녀회는 라면과 국수 등 먹거리와 휴지, 치약, 물티슈 등 생필품으로 구성된 꾸러미를 전달하고, 안부를 직접 살핌
 - 탁지은 동백1동 새마을부녀회장은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부녀회 회원들이 뜻을 모아 생필품 꾸러미 지원 사업을 진행했다”며 “전달한 물품이 각 가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함
 - 같은 날 동백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지역 내 홀몸 어르신 가정 10곳을 방문해 전기매트를 전달
 - 구본선 동백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은 “추위와 난방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을 위해 전기매트를 전달했다”며 “어르신들이 따뜻한 겨울을 위한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함
 - 21일에는 지역 내 교회 3곳이 추수감사절을 기념해 나눔활동에 참여
 - 수지구 동천동 하늘꿈교회(담임목사 양주승)는 주민센터를 방문해 17만원 상당의 생활용품 50박스를 기탁
 - 하늘꿈교회는 성도들이 직접 마련한 물품들을 지역 내 홀몸 어르신과 한부모 가정, 조손가정 등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해달라고 부탁
 - 동천동 관계자는 “어려운 이웃에게 관심 갖고 나눔에 동참한 하늘꿈교회의 온기를 담아 어려운 이웃에게 잘 전달하겠다”고 함
 - 이날 처인구 역북동에 있는 신성장로교회도 지역 내 저소득 가구를 위해 쌀 90포를 역북동에 전달
 - 신성장로교회 교인들은 추수감사절을 맞이해 기부를 실천했다. 쌀 포대는 백미와 귀리, 찰흑미, 찰현미, 혼합곡으로 구성
 - 역북동 관계자는 “매년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돕고 있는 신성장로교회 교인들이 직접 기부한 쌀을 11월 중 지역 내 저소득 가구에 모두 전달하겠다”고 말함
 - 이와 함께 수지구 풍덕천2동에서도 수지예본교회가 추수감사주일을 기념해 생필품꾸러미 99박스를 전달
 - 수지예본교회 전광진 담임목사는 “성도들의 마음을 담아 어려운 이웃을 위한 생필품 박스를 기탁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교회가 되겠다”고 말함

- 22일에는 기흥구 기흥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홀로 어르신 10가구를 방문해 건강음료 배달 함
 - 기흥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2018년부터 ㈜폴무원 용인기흥남부 지점과 매주 3회 유산균 음료와 녹즙을 지원했고, 어르신의 안부를 직접 확인해옴
 - 김영숙 기흥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갑작스런 한파에 면역력이 약한 어르신들에게 건강음료가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이웃을 위해 지속 관심갖고 따뜻한 마음이 전달되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함
- 같은 날 기흥구 동백2동에는 동백유치원 원생들이 직접 모은 소중한 성금 28만 6000원이 전달됨
 - 기탁금은 올해 10월 유치원생들이 직접 만든 수공예 제품을 판매한 ‘함께 그린 프리마켓’ 수익금으로 마련됨
 - 동 관계자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마음을 모아준 유치원 학부모와 교직원, 원생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어려운 이웃에게 원생들의 소중한 마음이 담긴 온정을 잘 전달하겠다”고 말함
- 기흥구 신갈동에도 기부금이 전달, (주)용마로지스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해달라며 300만원을 22일 기탁
 - 경기도 김포시에 본사가 있는 전문 물류회사 (주)용마로지스는 기흥구 신갈동 에도 물류센터를 운영 중으로, 매년 신갈동에 이웃돕기 성금을 전달해오고 있음
 - (주)용마로지스 관계자는 “추운 겨울을 앞두고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에 도움이 되고 싶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으로 나눔을 이어가겠다”고 말함
- 23일 기흥구 서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저소득 한부모 가정 청소년 15명에게 30만원 상당의 방한용 외투를 전달함
 - 전달된 물품은 유명 회사 제품으로 또래문화에 민감한 사춘기 청소년들이 심리적으로 위축되지 않도록 배려함
 - 권영지 서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은 “청소년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고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바란다”며 “소외되고 어려움을 겪는 이웃에게 적절한 복지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함
- 같은 날 용인라이온스클럽은 처인구 중앙동과 역북동, 유림동에 거주하는 저소득 이웃을 위해 800만원 상당의 김치와 쌀을 전달함
 - 라이온스클럽은 회원들이 회비로 마련한 성금으로 매년 이웃돕기를 실천하고 있음
 - 김문순 용인라이온스클럽 회장은 “회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성금이 어려운 이웃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줄 수 있어 기쁘다”며 “이웃 주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나눔행사를 마련하겠다”고 말함

- 24일 기흥구 기흥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특화사업의 일환으로 ‘포근 포근 겨울나기 패당지원 사업’을 진행
 - 협의체 위원들은 10개 가정에 겨울 외투를 전달하고, 저소득 가정과 홀몸 어르신을 직접 방문해 건강과 안부를 살핌
 - 김영숙 기흥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은 “추위에 취약한 아이들과 어르신들에게 겨울 외투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어려운 이웃들이 조금이나마 따뜻한 겨울을 보내면 좋겠다”고 말함
 - 24일 처인구 남사읍에 있는 전궁교회도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쌀 540 kg과 라면 14박스를 남사읍 행정복지센터에 기탁
 - 전궁교회는 지난해에도 쌀 610kg과 라면 16박스를 기탁했었음
 - 전궁교회 관계자는 “어려운 주민들이 보다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탬이 되기 바라는 마음을 담아 후원품을 전달했다”며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한 전궁교회는 앞으로도 이웃사랑 실천에 앞장서겠다”고 말함
 - 같은날 처인구 원삼면에는 원삼로타리클럽이 백미 20포와 겨울담요 20개를 기부함
 -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매년 쌀과 장학금을 지원한 원삼로타리클럽은 겨울을 앞두고 회원들이 소중한 뜻을 모아 기부활동을 이어감
 - 물품은 원삼로타리클럽과 협약을 맺은 원삼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어려운 가정 20여 가정에 직접 전달할 예정
 - 원삼로타리클럽 관계자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겨울을 어렵게 보내야 하는 원삼면의 취약계층을 위해 쌀과 겨울담요를 지원하게 됐다”고 말함
 - 24일 기흥구 영덕1동에서도 아름다운 동행이 이어짐
 - 영덕1동에 있는 우주어린이집 원생들은 이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바자회 수익금 30만원을 직접 전달
 - ‘함께하는 나눔, 따뜻한 이웃사랑’을 위해 성금을 전달한 어린이집 아이들은 작은 도움의 손길이라도 꼭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입을 모음
- ※ 용인시 보도자료 참조(동백1동/동천동/역북동/풍덕천2동/기흥동/동백2동/신갈동/서농동/중앙동/남사읍/원삼면/영덕1동 맞춤형복지팀)

2. 중앙정부 정책 동향

1 중앙정부 복지현안

건강보험 가입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부담 대폭 완화

<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사업 11월 13일부터 신청 개시, 12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 >

< 건강보험 가입 자립준비청년은 의료급여 2종과 유사한 수준으로 본인부담 경감 >



* 건강보험 가입 자립준비청년의 의료비 부담이 대폭 줄어들 예정, 보건복지부는 11월 13일부터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사업' 신청 접수를 개시한다고 밝힘, 신청을 통해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12월 1일 자 진료분부터 의료비 지원을 적용 가능(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관련「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고시 개정(11.6.~11.16. 행정예고, 12월 1일 진료(조제)분부터 적용)

- 이번에 신설되는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사업은 건강보험 가입 자립준비청년이 의료급여 2종과 유사한 수준으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
- 전체 자립준비청년('23년 기준 약 1.1만 명) 중 건강보험 가입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 비율은 각각 약 65%, 35%에 해당한다. 보호종료 초기에는 진학이나 취업 준비로 소득이 낮고, 원가정이 없으면 피부양자 자격 취득도 어려워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을 유지하다가, 직장에 취직하는 등 소득이 발생하면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가 대부분, 이렇게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되어도 계속해서 경제적 부담 없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이번 사업의 취지

(1) 지원 대상

- 지원 대상은 ▲보호종료일로부터 과거 2년 이상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를 받다가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으로, 자립수당 사업과 동일, 다만 ▲대상자가 건강보험 직장·지역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자격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되며, 의료급여 수급자나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는 해당 제도를 통해 이미 낮은 본인부담율이 적용되므로 지원에서 제외

- 병·의원, 약국 등 이용 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시스템에서 건강보험 자격조치 후 적용
- (2) 지원 기간
 - 지원 기간은 보호종료 후 5년, 지원개시일은 의료비 지원 대상자로 지원 결정된 날의 다음날 부터이며 지원종료일은 보호종료일로부터 60개월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로 신청자별 지원개시일과 지원종료일은 별도로 통보할 예정
- (3) 지원 내용
 - 입원·외래 진료를 받거나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 받는 경우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는 본인일부부담금으로 요양기관 종별, 입원·외래 여부 등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20%~60%를 부담해야 하지만,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14%만 부담,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 본인일부부담금과의 차액은 국고에서 정산되며, 의료비 지원이 적용되는 진료 횟수나 지원금액에 제한 없음
 - 의료급여 2종 수준으로 차상위계층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건강보험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지원사업” 내 18세 미만 아동 등과 유사한 본인부담률(14%) 적용
 - 예를 들어, 종합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고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20만 원이 나온 경우,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는 본인일부부담금으로 10만 원 (본인부담율 50%)을 부담해야 하지만,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2만 8천 원(본인부담율 14%)만 부담
- (4) 신청 절차
 - 11월 13일부터 개시하는 신청 접수는 11월 기준 자립수당 수급 중인 자립준비청년(단, 2019년 1월 1일 이후 보호종료자에 한함)을 대상으로 하며, 온라인 신청창구(svb.kr/jarip)에 접속하여 신청
 - * 12월 이후 신규 보호종료 예정인 경우에는 자립수당 신청 시 관할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이 의료비 지원 사업도 함께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
 - 신청 접수 개시와 함께 몰라서 지원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없도록 자립수당 수급자 대상 문자 안내, 자립정보 ON 홈페이지 게재 등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하여 신청을 독려할 예정이며, 신청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가능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참조

2

중앙정부 복지현안

내년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 다인·다자녀 가구 및 생업용 자동차 기준 완화를 위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 2024년부터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 본격 시행 >

* 보건복지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자동차재산 기준을 완화하기 위하여 관련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23.11.23.~12.13.) 한다고 밝힘

* 고시명: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저출산 상황 등을 고려하여 다인(6인 이상)·다자녀(3명 이상) 수급가구 자동차에 대한 일반재산 환산율(월 4.17%) 적용 기준을 완화한다.

- 근로유인 확대를 위해 생업용 자동차 1대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현행 50%만 산정)하고, 생업용 자동차 중 승용자동차의 기준도 완화한다.

○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기존 자동차 보유가구에 대한 생계급여 지급액이 늘어나고, 신규로 수급 혜택을 받는 가구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 자동차재산 기준 개선사항 >

		현 행	개 선('24년~)
다인·다자녀	승용자동차	△ 1,600cc 미만 * 차량 10년 이상 또는 가액 200만 원 미만	△ 2,500cc 미만(7인승 이상) * 차량 10년 이상 또는 가액 500만 원 미만
	승합자동차	△ 1,000cc 미만 * 차량 10년 이상 또는 가액 200만 원 미만	△ 소형 이하 승합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 차량 10년 이상 또는 가액 500만 원 미만
생업용 자동차		△ 1,600cc 미만(승용자동차의 경우) 1대 * 자동차 가액 50% 재산범위 제외 * 나머지 50%에 대해 일반재산 산정 제외 환산율 적용	△ 2,000cc 미만(승용자동차의 경우) 1대 * 자동차 가액 100% 재산 산정 제외

※ 다인·다자녀 수급가구 개선 사례(구체적인 내용은 【붙임2】 참고)

△ (현행) 아내, 자녀 3명과 함께 사는 5인 가구 A씨는 수입이 월 180만 원 이나, 소유하고 있는 차량가액이 100% 월 소득으로 환산되어 생계급여 탈락

△ (개선) '24년부터 다자녀 가구는 2,500cc 미만의 자동차에 대하여 차량 가액의 4.17%만 월 소득으로 환산되어 소득인정액이 감소, 생계급여 수급 가능

※ 생업용 자동차 개선 사례(구체적인 내용은 【붙임2】 참고)

△ (현행) 생업용으로 자동차를 이용하고 있는 B씨는 자동차 배기량 기준을 초과하여 차량가액이 100% 월 소득으로 환산되어 생계급여 탈락

△ (개선) '24년부터 2,000cc 미만의 생업용 자동차 1대는 재산 산정에서 100% 제외되어 소득인정액이 감소, 생계급여 수급 가능

□ 이번 고시 개정은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에 따른 것으로, 제3차 종합계획에서는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외에도 다양한 제도개선 과제를 담고 있다. 2024년부터 주요 제도개선 과제들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며, 주요 개선내용은 다음과 같다.

○ (생계급여)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상향하고,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지원수준을 2023년 월 162만 1천 원에서 2024년 월 183만 4천 원으로 21만 3천 원(13.16%) 인상한다. 또한 근로·사업소득 추가 공제 대상 연령 기준을 현행 ‘24세 이하’에서 ‘30세 미만’ 청년으로 완화하여, 청년층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근로를 유인하고 탈수급을 유도한다.

○ (의료급여) 중증장애인이 있는 수급가구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미적용하고, 2013년 이후 동결된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재산기준을 완화하여 의료급여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 (주거급여)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47%에서 48%’로 상향하고, 임차가구에 대한 기준임대료를 2023년 대비 급지·가구별로 1만 1천 원에서 2만 7천 원(3.2~8.7%) 인상한다.

○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를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초등 46만 1천 원, 중등 65만 4천 원, 고등 72만 7천 원)으로 인상하여, 저소득층의 교육비를 경감하고 교육기회를 보장한다.

< '24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주요 개선내용 >

	현행	개선('24년~)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30% △(지원수준) 월 162만 1천 원(4인 가구)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32% △(지원수준) 월 183만 4천 원(4인 가구)
의료급여	△(근로소득 추가공제) 24세 이하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지속 완화	△(근로소득 추가공제) 30세 미만 △중증장애인이 있는 수급가구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주거급여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47% △(기준임대료) 16만 4천 원~62만 6천 원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48% △(기준임대료) 17만 8천 원~64만 6천 원
교육급여	△(초) 41만 5천 원, (중) 58만 9천 원, (고) 65만 4천 원	△(초) 46만 1천 원, (중) 65만 4천 원, (고) 72만 7천 원

※ 보도자료 참조(복지정책관 기초생활보장과)

3

중앙정부 복지현안

온

*

※ 보도자료 참조(인구아동정책관 아동권리과)

4

중앙정부 복지현안

온

*

※ 보도자료 참조(인구아동정책관 아동권리과)

5

중앙정부 복지현안

온

*

※ 보도자료 참조(인구아동정책관 아동권리과)

6

중앙정부 복지현안

온

*

※ 보도자료 참조(인구아동정책관 아동권리과)

7

중앙정부 복지현안

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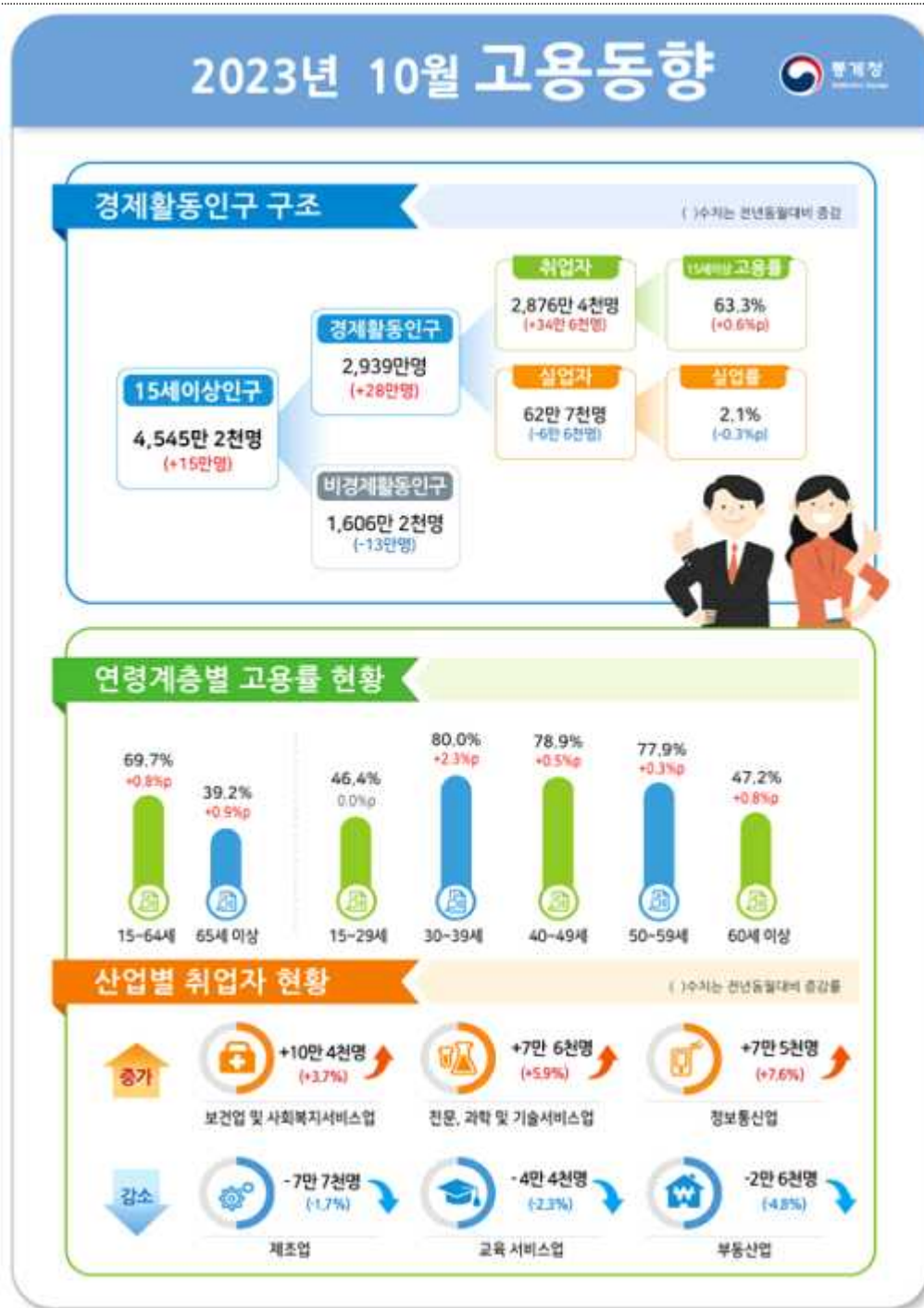
※ 보도자료 참조(인구아동정책관 아동권리과)

3. 통계로 보는 복지

1

중앙 통계현안

2023년 10월 고용동향



※ 자료 : 통계청 자료(사회통계국 고용통계과)